

2017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 인문사회계열Ⅱ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답안지의 첫째 줄부터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6.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7.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
8.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9. 답안은 반드시 문항별로 지정된 구역에만 작성하십시오.
10.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11.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 놓으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상기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응시자 성명 _____ (서명)



CHUNG-ANG UNIVERSITY

[인문사회계열Ⅱ]

□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17세기 프랑스 화가 푸생은 두 편의 <아르카디아의 목자들>이란 그림을 그렸다. 푸생의 그림 1편에서는 죽음이 어디에나 있다는 깨달음에 집중하고자 인물들을 전경의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무덤 위의 해골은 아무도 죽음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진실을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2편에서는 양치기로 보이는 세 남자 중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에 새겨진 글을 해독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이 글귀를 가리키며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돌아보고 있다. 묘비에는 라틴어로 “나도 아르카디아에 살았던 적이 있다.”라고 써어 있다. 이 말은 ‘나, 죽음은 아르카디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현실과 마찬가지로 이상향에도 죽음은 어김없이 존재한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출생으로 시작된 모든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점에서 죽음은 보편성을 지니며, 죽음을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실패하고 만다는 점에서 죽음은 불가피성을 지닌다. 하이데거는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 하고 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은 자기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인간은 삶의 유한성과 일회성을 깨닫고,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실존에 대하여 성찰하게 된다.

(나) 오이디푸스 이 사람이 말한 그 아이를 그에게 주었는가?

하인 주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날 죽어 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중략]

오이디푸스 어디서 얻었는가? 그대 집안의 아이인가, 아니면 다른 데서 온 아이였나?

하인 제 아이는 아니고, 다른 데서 받았습시다.

오이디푸스 이 시민들 중 누구에게서, 그리고 어떤 집으로부터인가?

하인 신들께 걸고 비오니, 제발, 제발, 주인이시여, 더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오이디푸스 내가 다시 한 번 똑같은 질문을 하게 한다면 그대는 죽어 있으리라.

하인 그러시다면……. 라이오스의 친척들 중 누군가였습니다.

오이디푸스 노예였는가, 아니면 그의 혈족 가운데 하나였는가?

하인 아아, 말하기 무서운 진실 바로 앞에 이르렀구나!

오이디푸스 나도 듣기 무서운 진실 앞에 이르렀다. 그래도 들어야 한다.

하인 그때 그분의 아이라고들 했습니다만, 안에 계신 당신 부인께서 어찌 된 일인지 가장 잘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이디푸스 그녀가 그대에게 주었던 말인가?

하인 물론입니다, 왕이시여.

오이디푸스 어찌라는 것이었나?

하인 저더러 그 아이를 없애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 어머니가 감히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하인 예, 불길한 예언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오이디푸스 어떤 예언인가?

하인 그 아이가 부모님을 죽일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 그대는 대체 왜 이 노인에게 넘겨주었는가?

하인 아이가 가여워서였습니다. 오, 주인이여. 자기 고향인 다른 땅으로 데려가리라 생각해서 말입니다. 한데 그는 아이를 구하여 가장 큰 불행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말하는 그가 당신이라면, 그대는 불운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십시오.

오이디푸스 아아, 아아, 모든 것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구나, 명백하게! 오, 빛이여, 이제 내가 너를 보는 게 마지막이 되기를!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태어나서,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들과 어울렸고, 죽여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인 자라는 게 드러났으니!

[중략]

결국 자신의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인 범인이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격심한 고뇌와 슬픔에 빠진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이오카스테가 자결한 것을 보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찔러 장님이 된다.

(다)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라) 등장인물 촌장, 파수꾼 1, 파수꾼 2(노인), 파수꾼 3(소년)

파수꾼 3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건 저뿐이었어요. 모두들 잠을 잤구요. 그 틈을 노려 이리 떼가 습격해 오면 어쩌나 하구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여기저기를 바라보았죠. 아무

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에 흰 구름뿐이었어요. 그걸 향해 망루 위의 파수꾼은 “이리 떴다!” 외쳤습니다. 세 번이네요. 세 번, 저는 망루 위에서 그걸 제 눈으로 보았어요. 이리 떴라곤 없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파수꾼 2 애야, 난 네 마음을 안다. 넌 이리가 두려워서 저 높은 망루 위엘 올라가고 싶었겠지?

파수꾼 3 저는 정말 망루 위에 올라갔어요.

파수꾼 2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덧붙여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헛소리를 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 떴다 소린 하지도 마라.

파수꾼 3 여기 낮은 곳에 계시니까 모르시죠. 하지만 저 높은 곳엘 올라가면 이리 떴다 소린 다는 걸 아실 거예요. [중략]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냐?

파수꾼 3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떴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중략]

파수꾼 3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

파수꾼 3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파수꾼 3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덧붙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파수꾼 3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떴다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 떴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떴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중략]

(파수꾼 ‘3’은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파수꾼 3 이리 떴다, 이리 떴! 이리 떴다 몰려온다!

(파수꾼 ‘1’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2’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파수꾼 1 북소리 중지! 이리 떴는 물러갔다!

촌장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떴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중략]

(망루 위에서 파수꾼 ‘3’이 내려온다.)

파수꾼 2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촌장 고맙다. 정말 잘해 주었다.

(마) 결과론은 결과의 좋고 나쁨을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는 옳은 행위이고, 나쁜 결과를 낳는 행위는 그른 행위로 보기 때문에 결과론은 동기나 행위 자체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그래서 결과론은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는 것이나 도덕 규칙이나 원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결과론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수행한 행위도 결과가 나쁘면 그른 행위로 평가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도 결과만 좋으면 옳은 행위로 평가된다.

(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어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깜깜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사) 항상 당신이 첫 번째 사람이 되어 움직일 수는 없다.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많은 조건은 우리가 집단의 틀을 깨고 상황을 바꾸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난 뒤에 다시 두 번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면 상황은 바뀐다. 당신은 첫 번째 행위자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세 번째 사람이 되어 변화를 촉진할 수는 있다. 그 작은 행동은 때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해내기도 한다. 2005년 10월 17일, 지하철 5호선 천호역.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열차가 타는 곳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타는 곳 사이로 떨어졌다. 열차는 정차되었고, 곧 문이 열리면서 승객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폐쇄회로 TV(CCTV)를 통해 녹화된 영상에서는 이상한 장면이 목격된다. 타는 곳에 내린 승객이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전동

차가 반동에 의해 조금씩 흔들렸고, 한순간에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였다.

(아) 롤스는 『정의론』에서 '무지의 베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지의 베일을 쓴 각자는 사회에 있어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천부적 자산과 능력, 지능과 체력, 기타 등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 [중략] 또한 나는 당사자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의 특수 사정도 모른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나 그것이 지금까지 이룩해 온 문명이나 문화의 수준도 모르고 있다."

'무지의 베일'이란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적 정보를 마치 베일을 씌우는 것처럼 없애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지위, 계층, 능력 등 자신과 타인의 특수한 조건을 알 수 없게 된다.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악용하지 않고, 이해관계를 벗어나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량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날날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다.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진실(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태도'와 '그 태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각각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에 등장하는 파수꾼 3이 촌장과 대화한 후 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파수꾼 3의 행위를 제시문 (마)에 근거하여 옹호해 보고, 파수꾼 3의 인식의 한계를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진실(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나)와 (아)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문 (자)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